건강 칼럼

# 류머티스 관절염, 정확한 내과 진단 받고 치료해야

원 제 범
아산본내과 원장

일반적으로 사람의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면역체계의 이상이 발생해 외부의 문제가 아닌 자기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막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처음에는 작은 관절 통증부터 시작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게 된다. 증상이 만성화되면 관절 파괴와 연골 손상을 포함해 다른 장기에까지 합병증이 발생하는 등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 자신의 병을 진단받고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발병 2년 정도가 지나면 관절 변형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며, 전신에 염증이 퍼지게 된다면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초기 증상은 평범한 관절통처럼 느껴지기에 환자가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또한 초기 발병 시 방치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 오진으로 인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해당 질환은 전문의들도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명의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환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진단에 맞춘 치료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검사 시에는 혈액 검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B형 보균자나 노화의 이유로 류마티스 인자 양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와 이외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문진만으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류마티스 인자 유무, 항ccp 항체, 염증 지표 물질, 관절 활막 염증 여부를 모두 검사해야 하며,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

치료의 방법으로는 비정상적 면역 반응을 줄이기 위한 면역 억제 치료가 일반적이며, 메토트렉세이트, 설파살라진, 레플루노미드와 같은 항류마티스 약제가 대표적인 면역억제제가 새롭게 추가될 수 있다.

해당 질환은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활막에 발생한 염증 유발 물질을 조절하며 관절의 손상을 줄이거나 악화를 예방하는 식으로 치료해야 한다.

만약, 여러 약물을 활용해도 차도가 없거나 약물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단계 치료라 할 수 있는 표적 치료가 필요하다. 류마티스 질환의 표적치료제는 항암표적치료와 원리처럼 면역 반응의 특정 요소인 사이토카인이나 세포만을 타겟해 차단해 면역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치료법이 효과가 없다면 다른 치료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해당 질환은 꾸준하게 치료하고 관리한다면 손상이 거의 없는 상태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치료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 사설

### 익산 박운섭 기획 최대전

'제20회 행복을 그리는 남자 박운섭' 기획 초대전이 최근 익산에서 열려 관심을 모았다. 박운섭 화가는 '행복을 그리는 화백'으로 유명하다. 코로나19와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요즘 그의 그림은 힐링을 전해준다는 평이다.

그의 작품은 변함없이 위드코로나 시대에 힐링을 주고 있다. 몸도 쉬고 마음도 쉬어 가며 슬기로운 언택트 생활을 즐기다 행복꽃 필 무렵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번 초대전의 테마는 '아름다운 풍경 하나, 추억'이다. 작가는 꽃이 준 선물을 통해 의인화하거나 은유법을 사용했다.

모란꽃에 염원을 담은 민속놀이의 만남, 그리고 화가의 마음을 은유한 꽃봉오리도 등장한다.

작가는 충만한 생명의 리듬감, 환희와 기쁨 그리고 화합을 표현하고자 했다. 전시는 수채화와 유화로 구성된 꽃과 자연 풍경으로 일관한다. 그의 작품은 삶에 대한 긍정의 힘이 넘치며 꽃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한다.

그는 비현실적인 아름다움을 열망하지 않는다. 사랑을 담아 실제보다 아름다운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할 뿐이다. 정원 풍경을 소재로 한 그림에서는 화면 속 냇가의 물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의 떨림이 있다.

세상의 묵은 때를 씻는 작가의 맑은 심성이 담겨 있다. 박운섭 화가는 "내 나이 예순쯤에 터득한 것은 행복을 좇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에 미달했을 때 실패감을 느껴 오히려 불행감을 맛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박 화백은 현재 전북 미술대전 초대작가, 우석대 수채화 전담 교수, 박운섭 아카데미(수채화&유화) 운영, 한국미술협회 수채화 분과 위원장, 전라북도 한국미술협회 부회장, 한국미술협회 익산지부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상산고 입학 경쟁률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우수 인재들이 상산고 진학을 위해 앞 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산고가 전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 정원 대비 입학생 수는 88.6%이다.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역시 각각 88.2%와 83.7%로 집계되는 등 전국 대부분 자사고가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상산고의 경우는 예외였다.

상산고의 모집 정원 대비 입학생 수는 2020년 101.9%, 2021년 102.8%, 2022년 102.4%를 기록했다. 매년 모집 정원을 초과한 인재가 상산고에 입학하고 있는 것이다.

상산고의 지역인재 전형은 입학 정원 가운데 20%가 전북 몫으로 주어진다. 이 가운데 여학생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2대1에 달하고 있다. 남학생은 겨우 채우거나 미달을 보이고 있다.

전북 내 학생 몫을 오히려 타지 학생에게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상산고의 2022학년도 1인당 등록금은 527만5611원으로 강원도 민족사관학교 1665만6447원에 이어 전국 35곳 자사고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전국 자사고 평균 1인 등록금은 462만원이다. 한편 이전 정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오는 2025년까지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다시 자사고 존치로 입장을 바꾸었다.

상산고는 전북 몫으로 주어지는 지역 인재 전형을 채우지 못해 타 지역 학생들이 그 몫까지 오는 경우도 많다. 타 시도 학생이 주소지를 옮겨 입학하는 사례도 있다. 낙후 전북은 여전히 인재 육성이 절실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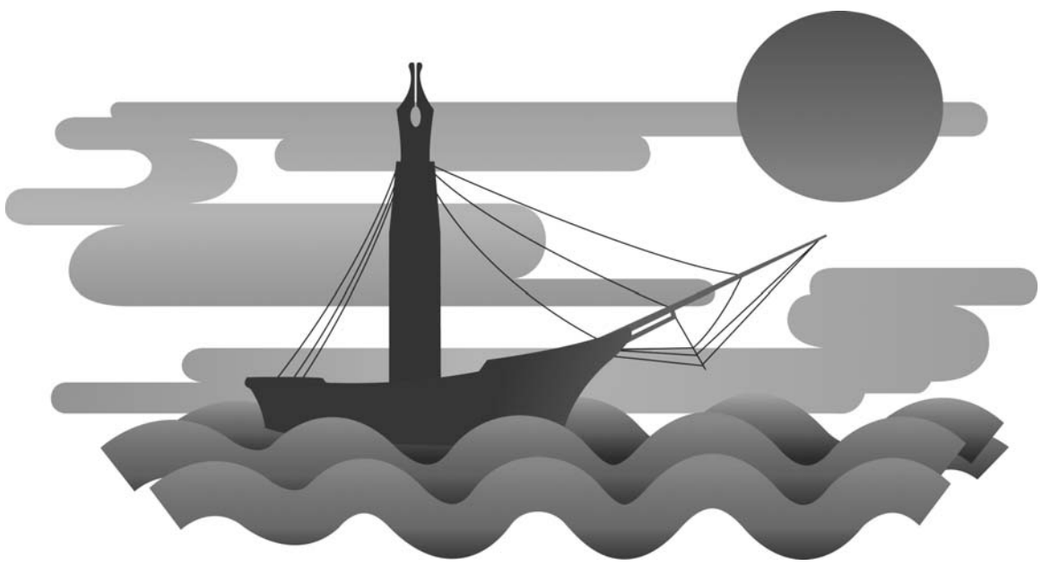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필리핀 대면 수업 재개, 학교서 노는 아이

2일(현지시간) 필리핀 케손시의 한 공립학교에서 한 학생이 재주를 부리며 놀고 있다. 필리핀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이후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서 필리핀 전역 수백만 명의 학생이 공립학교로 다시 몰려들었다.

### "태양 전지가 효자"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한 주민이 아파트에 4시간가량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태양 전지판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발전량의 40%를 잃은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앞두고 전력 절약을 위해 순환 단전을 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